

기도

1. 오직 예수님만 따르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당신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맡겨주신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

바이블로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3:16)는 주제를 갖고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사랑이며(20:31), 그 사랑 안에서 성도는 서로 친밀한 교재를 나누게 된다(10:16).

구역 공과

2021년 11월 28일

나를 따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7-22절 (27장, 449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던 중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17-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이유는 첫째, 네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제자들과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마26:31-35).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되고 확실한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것 같아도 언제든지 무너지거나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을 때 주님이 인정해주셔야 온전한 사랑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구원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고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고전13:12).

셋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과 사모함과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은 받았을 때처럼 다시 말씀과 기도, 예배, 봉사,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강할 때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18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을 받으나, 영이 잘 자라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19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고난을 받지만, 따라가지 않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롬8:17, 18).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고후1:5).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과 은혜인 줄로 믿고 고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20-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로서 평안하게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사명이 귀하고 인정받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한 사명입니다. 누구가와 비교하며 나의 것이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비교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